

강진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공모 선정

미래산업 대응 특화산업 육성 목표 국·도비 180억 투입 산단 내에 조성 기업 육성 핵심 거점 역할 수행 등 시제품 공유 메이커스페이스 설치

전라남도 강진군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공모에 최종 선정돼 지역 기업 육성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군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공모에 선정되면서 강진산단 내에 국·도비 142억원을 포함 총 180억원을 투입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한다.

이 곳은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위한 임대형 사업장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운영돼 앞으로 지역 기업 육성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후테크(C-Tech) 지식산업센터’로 방향을 설정했다.

‘기후테크’란 수익 창출과 함께 탄소감축 및 기후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산업을 뜻한다.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과 강진군 고유 산업 특색을 반영한 전략이다.

기후테크의 5대 분야 중 지역 여건에 적합한 ‘카본(Carbon)’, ‘에코(Eco)’, ‘푸드(Food)’ 세 가지 분야를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자원 순환 및 친환경 제품 개발, 식품 생산

및 농작물 재배 과정의 탄소감축 기술 등에서 부가 가치를 창출할 유망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기후테크 분야 유망기업을 유치·육성하고 산단 내 공장 입주를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앵커기업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센터에는 입주기업 직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숙사와 상업시설을 함께 조성하고 시제품 제작과 정보 공유를 위한 메이커스페이스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강진군은 이달부터 사전 건축기획을 본격 추진해 사업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유망기업 선제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

일 방침이다.

현재 환경산업진흥원 및 전문 투자사와 협력해 선정한 41개 기업으로부터 입주의향서를 접수한 상황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부지 매입과 산업육성 방향 설정을 초기에 마무리하고, 2년간 사전 기업 유치와 중앙부처·국회 방문을 지속해온 결과, 대부분 시 단위 지자체가 선정되는 이번 공모사업에서 군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강진군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국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국·도비 비율이 80%에 달하는 알짜 사업에 선정된 것은 매우 뜻깊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강진군 특화산업과 기업육성 기반을 견고히 다지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



중대재해예방 관리감독자 교육 무안군, 현업 종사자 역량 강화

전라남도 무안군은 지난달 30일 관내 복합문화센터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현업부서 관리감독자 32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과 연계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중대산업 및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자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숙지시키고 부서별 현업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및 위험성 평가 실무와 사례 △직무 스트레스 이해 및 관리 △전기안전 실무 등으로 구성됐으며 각 분야 전문 강사 4명이 강의에 참여해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관리감독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한 무안, 건강한 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은 470명의 현업종사자와 23개소의 공중이용 및 교통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안=김행언 기자

‘치유 페이’ 3000명 이용 이벤트 완도군, n번째 행사 지속

전라남도 완도군이 지난 2일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추진 중인 ‘완도 치유 페이’ 3000번째 이용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했다.

7일 완도군에 따르면 ‘완도 치유 페이’는 여행 경비의 최대 20만원을 지원해 주는 관광 정책으로, 지난 3월1일 첫 번째 방문객 환영 이벤트를 시작한 이후 1000번째, 3000번째 이용객을 맞이했다.

서정창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은 완도치유페스타 현장 안내소에서 완도 치유 페이 3000번째 이용객에게 완도 치유 페이 쿠폰과 특산품(완도 멸치)을 전달하고 완도 방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군은 앞으로도 ‘완도 치유 페이 N번째 이용객 이벤트’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를 방문해 주신 관광객 한분 한분의 소비가 지역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는 밑거름이 된다”며 “앞으로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도치유페이’는 오는 12월7일까지 진행되는 관광객 인센티브 제도로, 타지역 관광객은 완도 내 숙박, 식당, 카페, 특산물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또는 완도청정마켓 포인트 등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완도 치유 페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완도 치유 페스타’ 누리집(www.wdfesta.c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완도=정태영 기자

신안군, 개별주택 가격 공시 2024년 대비 1.33% ↑

전라남도 신안군은 2025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4월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개별주택 수는 총 1만5556호로 지난해 대비 1.33% 상승했다.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한 신안군 표준주택 1052호를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신안군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신안군 누리집(www.shinan.go.kr) 및 부동산공시 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향후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등 산정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오는 6월26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개별주택 가격 담당자(061-240-8327)에게 문의하면 된다.

신안=홍일갑 기자

시민 영어 무료 강좌 수강생 모집 목포시, 50명 선착순

전라남도 목포시는 오는 22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10회 영어 무료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6월2일부터 7월18일까지, 주 3회(월·수·금요일)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총 20회 과정으로 운영된다. 수업은 영어 기초 발음 및 실생활 회화 중심으로 전문 강사의 체계적인 지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영어에 관심 있는 목포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선착순 5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목포시 전략산업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메일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교재비를 제외한 수강료는 무료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전략산업과(061-270-4086)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시민 영어 무료 강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이번 강좌를 통해 시민들의 자기계발과 목포시의 국제교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무안군 남악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한 ‘함께하는 FUN’ 프로그램 중 지역 청소년들이 요가 활동을 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 남악 청소년문화의집, ‘함께하는 FUN’ 성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 청소년문화의집이 지난 3월부터 8주간 운영한 청소년 프로그램 ‘함께하는 FUN’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무안군에 따르면 ‘함께하는 FUN’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여가 문화 조성

과 주도적인 스트레스 해소를 목표로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중 ‘K-POP댄스’는 청소년들의 끼와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인기 활동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요가’ 프로그램은 신체 균형과 심리적 안정을 돕는 시

간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오선희 무안군 주민생활과장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해남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학습 격차 해소 목표

전라남도 해남군은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7~18세(2007~2018년생) 자녀가 있는 가정이다.

교육활동비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돼 200여명에게 총 1억6300만원을 지원했다.

신청일 기준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한국 국적 자녀로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를 포함해 지원한다. 초·중·고생(7~12세) 연 40만원, 중

학생(13~15세) 연 50만원, 고등학교(16~18세) 연 60만원을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1차 오는 30일까지, 2차는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다.

신분증과 신청 구비서류를 지참해 다문화가족의 부모, 자녀, 3촌 이내의 혈족이 해남군가족센터(061-534-0017)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차(5월) 신청자는 6월에, 2차(7월) 신청자는 8월에 카드포인트로 지급되며 오는 11월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 교육 목

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휴·사행업종, 위생·레저 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적응하고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